

자갈치아지매 _ 대선보도 중간 점검

_ 20211104

MC: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고 검증보다는 공방이 더 많은데다가 유권자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들은 더욱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겠는데요. 언론의 대선보도에 대해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과 함께 언론의 대선보도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함께: 반갑습니다.

MC: 주요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에 대해 ‘대장동 비리’ ‘고발사주’ 같이 굵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더 그런데요.

요즘 대선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하면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전하고 국정 운영능력, 공직자로서 합당한 도덕성, 그리고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언론보도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검색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64일치) 전국지 11개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주요이슈인 ‘대장동’ 과 ‘고발사주’을 검색해봤습니다.

최대 이슈답게 대장동 키워드로 총 9,53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하루 11개 신문에서만 하루 평균 148건 기사가 나왔다는 거고요.

언론사별로는 세계일보가 1,586건으로 제일많았고 중앙 1283건, 조선 1070건 순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한국일보 741건 / 한겨레 531건)

고발사주(9월 2일 뉴스버스 첫보도)는 9월부터 1.168건으로 역시 적지 않게 보도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인데,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별로는 역시 세계일보가 249건으

로 제일 많았고, 중앙 158건, 서울신문 139건 순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는 87건 보도하는데 그쳐 대장동 이슈에 보인 관심과 다
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MC: 여야 유력후보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많았는데 공약 관련 보도는 어땠습
니까?

같은 기간, ‘공약’ 키워드 중 대선을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2,325건이
있습니다.

또 ‘정책’ 키워드 중 대선 보도는 3,259건 이었습니다. 11개 언론에서 하루 평
균 36건~50건 보도한 셈입니다. 100회 이상 언급된 개별 공약은 ‘기본소득’
이었고요 분야는 ‘부동산’ 이었습니다.

물론 검색어에 세부 정책이나 공약명은 빠져있다 해도 이 기간 각 당 경선 후
보 및 출마 선언한 후보를 합치면 10명이 훨씬 넘고 각각 공약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후보 각각의 공약,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또 보도가 지나치
게 적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MC: 의혹보도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또 국민입장에서 보면 뭔가 속 시
원하게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진 것은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박: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공방을 중계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단순 전달이나 ‘개식용 금지’ ‘음식점 총량제’ 등
논란이 된 공약을 논란, 공방으로 전했습니다.

보도경쟁에, 클릭 유도를 위해 오보를 내거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해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오보로 조선닷컴이 9월 16일 대장동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진설명 중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는
등 내용을 담은건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오히려 광상도
후보 아들이 취업해 있었죠.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SNS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기사에 반영한 거였고
16일 바로 <대장동 사진 설명 바로잡고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내고, 이지사

와 독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내용 부각해서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 관련해 언급된 역술인을 찾아가거나, 의미를 해석하는 보도들도 쏟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로봇 박람회 참여해 4족 보행 로봇을 넘어뜨리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과격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뒀으면 네티즌 논란으로 끝났겠지만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로봇 굴러 ‘우당탕탕’ 온라인 시끌…문 과거도 소환> 기사에서 "(이 후보가 로봇을) 과격하게 다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이후 매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로봇 학대’라는 프레임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로봇업체 관계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요 후속 보도는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론의 보도는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유권자를 더 피곤하게 하고, 진실에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C: 언론의 전반적인 선거 보도를 돌아봤는데요. 부산지역 언론은 어땠나요?

박: 각 지역마다 후보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대통령 선거 때는 상대적으로 지역언론 보도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의 입장에서 후보의 비전과 지역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경선이 치열했던 10월 한 달 간 지역언론 선거보도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나 대선 후보, 경선, 공약 등 단어를 언급한 기사를 뽑아보니 총 172건 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은 국제신문 74건, 부산일보 76건으로 하루 평균 3.5건 이상 보도했고, 지역방송의 경우는 KBS부산 8건, 부산MBC 8건, KNN 5건으로 보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경선 관련 정당과 후보 행보, 경선에서 누가 유불리한지 점쳐보는 판세보도 등 '경선 관련 보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장동 화천대유, 검찰 고발사주, 검찰총장 정직 판결 등 유력 후보와 관련된 의혹 보도가 37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관련 보도가 29건으로 단연 많았고, 고발사주 5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3건 등이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였습니다.

MC: 전국지와 경향은 비슷하네요.

박: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보도로는 후보행보를 전하는 보도, 지역 정치계와 각당 경선후보를 연결짓는 보도가 각각 22건이었습니다. 정책을 언급한 보도는 후보행보에 곁들여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3건)

특히 방송은 여야 후보의 부산경남지역 방문, 부산경남 토론때만 보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 입장에서 후보들의 지역공약이나 지방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 보다는 '내가 000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 라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눈에 띄는 건 지역 정치인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 캠프 합류소식 등 세 불리기 보도, 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는 보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목만 소개해보면 <여 '명낙' 대결에 걸린, 부산 15곳 지역위원장직 운명> <윤.홍 구매 박차 부산서 잇단 지지 선언> <윤/홍 양분 부산 여성계, 여심 끌어올까> <윤을 지지할까? 홍을 지지할까? 막판 딜레마 빠진 PK 국힘 정치권> 등입니다.

MC: 대선은 다가오는데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준, 정보 있을까요?

박: 후보들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을 검증하는 언론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 검증,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모아놓은 곳이 찾아보는 등 당분간은 유권자, 청취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곳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NU 팩트 체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코너를 만들었는데 대선 관련 후보 발언이나 정책 등을 팩트체크한 언론 기사를 모아놨습니다.

팩트체크가 진행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 총생산 20년째 전국 꼴찌라고 한 것에 대해서

https://factcheck.snu.ac.kr/v2/facts?tag_name=20%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와 같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인구 1000명당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는 OECD 평균 70.4명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이재명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정하면 처벌받는다 => 절반의 진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관련, 많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책임'보다 '정치 공작'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 대체로 사실이 아님

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팩트체크넷, 뉴스톱 등에서도 선거 시기 후보들 발언이나 관련 보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참고하는데 도움될 거 같습니다.

MC: 내일 국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언론은 후보의 정책이나 검증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끝>